

서남권 호전·동북권 악화...가전 많이 사고 커피 줄이고

8월 서울 시민 소비경기지수 호전

소비경기지수 전년비 1.8% 증가
서남권 소비 3% 늘어, 서울 1위
숙박업 오름세... 여관업도 '쑥'

올해 8월 서울 소비경기지수가 무점포 소매와 종합소매업의 소비증가로 9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4일 '2018년 8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월간소비지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은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의 소비 주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증가했다.

특히 가전제품·정보통신의 소비가 1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달에 이어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의 소비증가도 지속됐다. 종합소매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에서 소비가 증가했지만, 독립슈퍼·잡화점업의 소비가 줄었다. 무점포소매는 인터넷 쇼핑이 견인했다.

숙박업은 올해 들어 최고의 오름폭(17.9%)을 보였으나 음식점업과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세가 지속돼 숙박·음식점업은 0.7% 증가에 그쳤다. 이달 숙박업의 소비증가는 호텔업뿐만 아니라 여관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

징이다.

지역별로는 서남권의 소비증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권, 동남권 순으로 경기호조를 보였다. 반면, 동북권과 서북권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해 지난달에 이어 서울시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가전제품·정보통신, 문화·오락·여가 소비가 강세를 보여 소매업(4.4%)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도심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증가하며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과 무점포소매 소비가 부진했지만, 종합소매업, 가전제품·정보통신 소비 증가로 감소폭이 줄었다.

동남권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

다.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의 높은 증가세에도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담배의 소비침체로 소매업 오름폭이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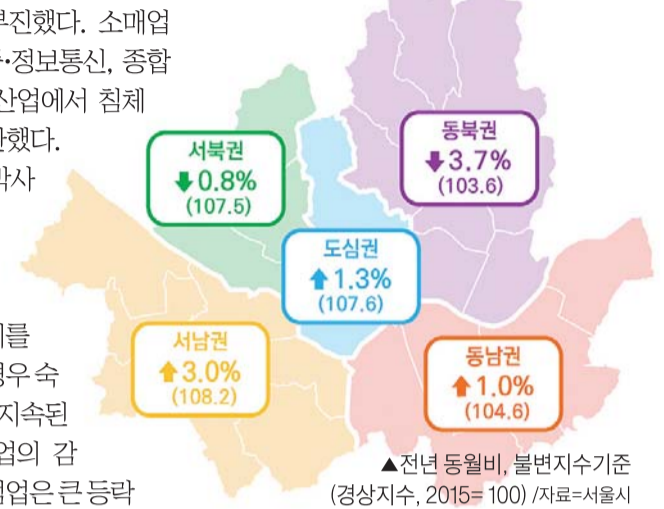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3.7% 감소해 서울시 권역 중 가장 부진했다. 소매업(4.4% 감소)은 가전제품·정보통신, 종합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침체를 보이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박사는 "소비경기는 최근 3개월간 약 1% 후반대의 양호한 오름폭을 보였다"며 "동일기간 보험세를 보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숙박업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음식점업은 큰 등락

없이 보험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8월 권역별 소비경기지수 및 전년동월대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적발 현장 /경기도청

청소년 불법고용·술 판매 업체 16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

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이다.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

서울시, 블록체인 강국 스위스와 교류협력 물꼬

(취리히)

서울시-취리히주 우호도시협약 전자정부·과학 기술혁신·관광 등

서울시가 블록체인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주와 우호도시협정을 맺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토마스 하이니거 주지사와 만나 '서울시-취리히주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취리히주는 스위스 북부 최대의 상업·금융 중심지로 인구는 115만8000명이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자정부, 과학 기술 혁신, 문화, 관광 분야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됐다.

박 시장과 토마스 하이니거 주지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모두 변호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협정 체결에 앞서 박 시장은 취리히 첫 여성 시장인 코린 마우흐 시장과 면담했다. 두 시장은 도시재생, 스타트업 활성화, 스마트 도시정책 분야 등 다양한 도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블록체인 센터 '트러스트 스퀘어'를 찾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립뉴스

면담에서 마우흐 취리히 시장은 내년 9월 서울에서 양 도시 주최로 처음 열리는 '취리히 서울과 만나다' 행사에서 서울시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시장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취리히시 소재 블록체인센터인 '트러스트 스퀘어'를 방문해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고 서울시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취리히주 간 우호도시협정 체결을 통해 블록체인 강국 취리히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도시로 비상을 준비 중인 만큼 취리히주와 정책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가짜 앰블런스 운행 단속 팔 건었다

경기도 사설구급차 업체 실태 조사 응급의료 법률 위반 등 9곳 덜미

응급환자 이송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의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9월 14일 열렸던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도서관 등 공공시설 10곳 비상용 무료 생리대 비치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시설 화장실 10곳에 비상용 생리대자판기(사진)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용 생리대자판기가 설치되는 장소는 ▲광진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도서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북서울미술관 ▲서울여성플라자 ▲중부여성발전센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다.

/김현정 기자

쪽방촌 등에 '보이는 소화기' 1만대 추가 설치

서울시 재산 피해 경감효과 높아

서울시가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1만대를 추가 설치한다. 보이는 소화기는 좁은 골목길, 쪽방촌,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누구든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담장, 거리에 설치한 공용 소화기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만184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 64건의 화재를 초기진압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투입예산 대비 재산 피해 경감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억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신속한 소화에 따른 피해 경감액은 38억 22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한 단계 진화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1만대를 추가 도입한다.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는 도심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



보이는 소화기 활용 사례. /서울시

집지역,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 고시원·학원 밀집지역 등의 거리에 설치된다. 아울러 시 소방재난본부는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 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말형 소화기는 장기간 보관 시 소화약제가 굳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10년 이상 된 소화기도 교체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